

주체별 소비자교육이 중학생 소비자의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경자*·장상옥**

사파중학교*·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Effect of Subject-Classified Consumer Education on Allowance Manag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Consumer

Kweon, Gyeong-Ja* · Jang, Sang-Ock**

*Safa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iddle school students'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and consumer education by the educational subject in order to explore a desirable direction of consumer education for allowance managemen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468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recognition of consumer education, the consumer education from home was the highest, and then the from school and mass media followed in that order. Second, the average score of the students' allowance managing behavior was low. The fulfillment ability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planning and evaluative ability. Third, as for overall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the more promoted a students' level of consumer education from school and mass media, the more cultivated his/her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As for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sub-factors, students' planning and fulfillment abilities were more cultivated, the more promoted his/her level of consumer education from school and mass media. Students' evaluative ability was more cultivated, the more promoted his/her level of consumer education from school and mass media.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in educational contents the students wanted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subjects of consumer education. The consumer education can be more practical when it is connected with home, school, and mass media,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with such connection is necessary.

Key word: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주체별(subject-classified),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 용돈관리 행동(the allowance managing behavi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부한 재화와 서비스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가정에서 자녀 수 감소와 자녀의 지위향상에 따라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자유재량 소비액이 증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근래의 소비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광고나 선전 등은 이들의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회피가 많아지게 된 현대의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용돈관리 행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소년기는 소비자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인 반면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행에도 민감하며, 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청소년들은 계층에 관계없이 대체로 용돈관리에 소홀하고(류두남, 2002; 성화선, 1999; 한은하, 1991), 낭비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리적인 구매보다는 감성적 구매 경향이 매우 강한 편(LG AD 브랜드 전략 연구소, 2002)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소비생활 습관은 성인기 소비생활에까지 연장되므로 청소년 소비자들을 미래의 현명한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소비생활 양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이 요구되며, 소비자역할의 기초가 되는 용돈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용돈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되며 소비자 경험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용돈과 이들이 받은 소비자교육의 관계 파악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소비자교육을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 용돈관리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은 주체별로 가정, 학교, 사회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용돈관리방법을 포함한 소비자교육은 가정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다

(조은주, 2006). 그런데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교육이 되기 어려워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은 근검절약 교육 또는 합리적 소비생활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가치, 태도와 관련된 사회화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류두남, 2002). 또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용돈관리 교육수준은 미미한 정도이고, 실생활에 쓸모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조은주, 2006)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용돈관리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용돈사용 실태(류두남, 2002; 성화선, 1999; 이승신·유재경, 2000; 우지웅, 2005)가 주류를 이루어, 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용돈관리 행동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교육주체를 개별적으로 용돈관리 행동과 연관시킨 연구는 일부 있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소비자역할 형성에 영향을 크다고 보는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소비자교육의 주체로 하여 청소년이 받았던 소비자교육과 용돈관리 행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용돈실태 및 용돈관리행동을 살펴보고, 가정,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중학생의 용돈실태 및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 2)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 및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 3) 중학생이 인식한 주체별 소비자교육 및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 4) 중학생이 인식한 주체별 소비자교육이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5) 중학생이 희망하는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내용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용돈관리 행동

용돈관리는 선천적인 자질이라기보다 학습과 경험에 의해 습득되므로 올바른 용돈관리의식을 지니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돈의 지도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양경순, 1993). 청소년의 합리적인 용돈관리 행동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소득에 알맞은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용돈을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은 인간 행동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기인한다. 용돈관리 행동에 포함되는 요인으로는 용돈지출의 결정행동, 용돈 부족 시 취하는 행동, 용돈이 남았을 때 취하는 행동, 용돈 사용 후 취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성화선, 2000; 한은하, 1991).

용돈관리 행동은 용돈 사용을 계획하는 계획성, 용돈지출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성, 지출한 용돈 사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성이 포함된다. 첫째, 계획성(Planning)은 자신의 용돈을 관리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사용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의미로 본 논문에서는 용돈획득 시 목표 계획수립, 일시적인 수입에 대한 계획, 구체적인 지출 계획, 비상금 확보, 충동구매여부, 저축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둘째, 실행성(Implementing)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제적으로 용돈을 지출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류두남, 2002), 본 논문에서는 용돈사용 내용, 저축, 충동구매, 과다지출, 부모님과 의논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평가성(Evaluating)은 자신이 세운 계획은 실제 행동으로 실행한 후 그 행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용돈관리 행동의 능력에 적용시켰으며, 용돈사용 내용, 부모님과 의논, 저축, 친구와 용돈쓰임새 비교, 용돈의 부족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2. 주체별 소비자교육

1) 가정소비자교육

소비생활의 중심이 되는 가정은 청소년 자녀가 모방, 동화, 동일시를 통하여 소비행동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므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기춘, 1991).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생활의 장으로 소비자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수준의 소비 관련 생활 경험을 갖게 하는 교육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은 합리적인 소비 지향에 영향을 주는데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의해 자녀들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은 자녀의 용돈관리와 구매행동 지도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이승신, 2004).

중학생들은 부모의 소비태도를 관찰하거나 부모로부터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거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소비자 학습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소비생활에 참여하게 된다. 가정에서 용돈의 올바른 사용법과 절약을 가르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나 자원의 유용한 사용을 지도하여 미래에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차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앞으로 사회에서 올바른 소비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권의주, 2002). 소비자교육에 따른 소비자 의식은 가정에서 소비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에서 소비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요구도가 높을수록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았다(최정희, 2002)고 한다.

2) 학교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소비생활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소비가치관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에 금전관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전관리에 대한 지식 획득이 빠를수록 금전관리 감각이 일찍 발달할 수 있겠고 이러한 능력은 장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대중매체) 소비자교육

사회교육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학교라는 공식 교육제도의 범주를 벗어난 맥락에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소비자교육은 주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 보호원 및 정부의 소비자교육 관련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소비자보호관련 법규 및 정부 시책 해설, 소비자 의식 개발을 위한 교육,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지혜, 소비자 고발 사례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교육은 사회교육의 일부로서 매우 적합한 교육이다. 특히 소비자교육에서 개인의 가치관의 확립과 그 가치관에 입각한 목표의 설정을 중요시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소비자교육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수립될 수 있다. 소비자단체와 더불어 소비자교육에 기여한 주체는 대중매체로서 연령, 지역, 계층을 초월해서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의식화에 폭넓게 공헌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의도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수행한다면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게 된다(이기춘, 1999).

사회 소비자교육 중에서도 대중매체는 가정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중요한 교육기능을 공식·비공식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학생이 받은 사회 소비자교육은 접근성이 좋은 대중매체로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소비자교육은 주로 방송뉴스, 신문, 일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접하는 매체는 주로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으로 다양화되므로(이승신 외 2인, 2004)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3. 소비자교육과 용돈관리 행동

교육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용돈관리 행동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적었고, 개별적으로 접근한 연구(성화선·김정숙, 2000; 김영옥, 2005; 전귀례, 2005; 조은주, 2006)가 있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어머니 교육과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과 관련을 본 조은주(2006)는 어머니는 소비 및 구매 교육을 용돈관리 교육과 물자절약 교육보다 높게 하고 있으며 모든 어머니가 경제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자녀의 금전관리능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녀의 용돈 지도방법 등 어머니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성화선과 김정숙(2000)은 부모의 용돈사용 확인과 가계부 기록여부가 자녀의 용돈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가정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영옥(2005)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소비자교육의 필요성, 교육경험 빈도, 연계 교과, 교육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소비자교육이 기술·가정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교육 내용은 합리적인 소비가치관, 합리적인 가계운영과 저축방법, 근검절약 및 정당한 부의 추구 순으로 배우기를 희망하였다.

대중매체와 관련한 소비자교육 연구(성화선, 1999; 정영선, 2002; 전귀례, 2005)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제지식 습득은 방송이 78.8%, 학교 8.7%, 신문 8%로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전귀례, 2005). 또 성화선(1999)은 용돈관리에서 영향력은 친구나 대중매체가 높은 반면 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하여 대중매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영선(200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에 의한 소비지식 수준이 소비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이 실제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교육주체 별 소비자교육과 용돈관리 행동을 종합적으로 관련시켜 연구한 경우는 부족한 편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금전사용과 관련한

교육은 소비자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금전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질문지로 문항은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용돈관리 실태, 용돈관리 행동, 소비자교육의 인식, 앞으로 희망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용돈관리 실태 및 행동은 성화선(1999), 류두남(2002), 장금옥(2003), 박일심(2004)의 연구를, 주체별 소비자교육 인식은 이영희(2000), 정영선(2002), 함현정(2003), 장혜경(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앞으로 희망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의 선정은 중학교 가정교과의 소비자 영역의 교육 내용을 기초로 하고 열 명의 중학생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교육 요구 및 근래의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경남지역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이 어색하거나 이해가 어렵다는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문항 및 신뢰도 (Cronbach's α)는 <표2>에 제시하였다. 문항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5점, '조금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조금 아니다'에 2점, '매우 아니다'에 1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이 높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의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녀 학생 480명이다. 조사기간은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총 480부의 질문지를 조사대상에게

<표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N(%)
성별	남자	226 (48.3)
	여자	242 (51.7)
학업 성적	하	61 (13.0)
	중	192 (41.0)
	상	215 (45.9)
가정 소득	200만원 이하	48 (10.3)
	201~300만원	165 (35.3)
	301~400만원	129 (27.6)
	401~500만원	51 (10.9)
	501~600만원	32 (6.8)
	601만원 이상	43 (9.2)
어머니 학력	초등졸	7 (1.5)
	중졸	30 (6.4)
	고졸	264 (56.4)
	전문대졸	32 (6.8)
	대졸	98 (20.9)
	대학원졸	37 (7.9)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31 (49.4)
	판매서비스직	102 (21.8)
	사무직	89 (19.0)
	고급 기술직	32 (6.8)
	행정관리직	5 (1.1)
	전문직	9 (1.9)
	계	468 (100.0)

<표 2> 조사문항의 신뢰도

용돈관리 행동			주체별 소비자교육 인식		
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계획 능력	6	.827	가정	7	.757
실행 능력	6	.765	학교	7	.843
평가 능력	6	.852	대중매체	5	.840
전 체	18	.911	전체	19	.859

배부하여 부실기재를 제외한 468(97.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3> 성별은 여학생 51.7%, 남학생 48.3%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학업성적은 상 그룹이 45.9%, 중 그룹이 41.0%, 하 그룹이 13.0%로 대부분이 중 이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가정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201~300만원(35.3%)과 301~400만원(27.6%), 401~500만원(10.9%)으로 60% 이상이 201만원~400만원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었는 데 반 이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2006년 3,443,399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56.4%), 대졸(20.9%), 대학원졸(7.9%)로

비교적 고학력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9.4%, 판매서비스직(21.8%), 사무직(19.0%), 고급기술직 6.8% 등으로 취업 주부와 전업주부가 비슷한 비율이었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용돈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돈관리는 교차분석과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용돈관리

<표 4> 중학생의 용돈 실태

N(468)							
항 목	구 분	N	%	항 목	구 분	N	%
용돈액수	1만원 미만	31	6.6	용돈사용 정도	부족	85	18.2
	1~2만 미만	88	18.8		거의 다 사용	186	39.7
	2~3만 미만	125	26.7		반 정도 사용	128	27.4
	3~4만 미만	85	18.2		거의 사용 없음	69	14.7
	4~5만 미만	38	8.1	용돈사용 내용	학용품	246	52.6
	5~6만 미만	28	6.0		교양, 오락비	325	69.4
	6~7만 미만	18	3.8		외식비, 간식비	307	65.6
	7~8만 미만	11	2.4		의류, 신발	162	34.6
	8만 이상	25	5.3		선물비	79	16.9
안받음	19	4.1	교통비		96	20.5	
용돈액수 결정방법	부모님과 상의	225	48.1		저축	82	17.5
	부모님이 결정	183	39.1	도서구입 및 대여	105	22.4	
	내가 결정	60	12.8	저축정도	정기적 저축	56	12.0
용돈액수 인식	많다	35	7.5		가끔 저축	268	57.1
	적당	308	65.8		저축 안함	144	30.8
	적다	125	26.7	용돈통장 보유동기	부모님이 만들	126	52.7
용돈 획득 주기	매일	36	7.7		내가 만들	100	41.8
	매주	102	21.8		학교의 권유	13	5.4
	한달에 2~3회	21	4.5	자산관리 통장 수	없다	148	31.8
	한달에 1회	151	32.3		1개	269	57.4
	수시로 (요구)	125	26.7		2개	44	9.4
수시로 (주심)	33	7.1	3개 이상		7	1.5	
용돈 획득 방식	현금	431	92.1				
	통장	16	3.4				
	통장+현금	21	4.5				

행동의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용돈관리 행동은 t-검증과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 Scheffe의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중학생이 원하는 주체별 소비자교육 내용은 다중응답분석을 하였다. 소비자교육의 인식 정도와 용돈관리 행동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학생의 용돈실태 및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먼저 중학생의 용돈실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용돈실태는 변인별 범주를 재분류하여 교차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1, 표 5-2>에 제시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라 용돈액수, 용돈액수 결정방법, 용돈적정여부, 용돈 받는 주기, 용돈 사용 정도, 저축 정도, 자신관리 통장 수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중학생의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1) 용돈의 액수, 결정방법 및 획득 주기

중학생들의 월 평균 용돈은 2~3만원(26.7%)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1~2만원(18.8%), 3~4만원(18.2%) 순이며, 6만원이상은 11.5%로 약 65% 가까운 학생이 1만원~4만원을 받고 있었다. 성화선의 연구(1999)에서 파악한 중학생 평균 용돈 19,780원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용돈액수는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남녀 모두 2~4만원이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여학생은 4만원이상(29.8%), 남학생은 2만원 미만(31.8%)이 가장 많아 여학생의 용돈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맹영임(2003)의 연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하 집단은 4만원이상이 가장 많

은 반면, 중과 상 집단은 2~4만원이 가장 많아 성적이 낮은 집단의 용돈이 많았다. 한편 가정소득에 따른 용돈액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박경숙(1999)은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용돈액수의 인식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의 용돈에 대해 적당하다는 65.8%로 가장 많았고, 부족하다는 26.7%, 많다는 7.5%로 나타나 상당수가 적당하다고 보나 약 1/4은 부족하고 7% 대는 많다고 인식하였다. 용돈액수의 인식은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적다는 인식은 학업성적이 하 집단(36.1%)과 중 집단(31.8%)이 상 집단(19.5%)보다 높았다. 용돈액수의 결정방법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결정’은 39.1%, ‘본인이 결정’은 12.8%로 나타나 반 정도가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약 40%는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정성임(1986)과 성화선(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어머니의 결정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래 자녀수가 감소되면서 가정에서 자녀의 위치가 상승되어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타협을 통하여 용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급자와 획득자 둘 다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생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돈액수 결정 방법에서는 성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는데, 여학생은 부모님과 상의하여(55.8%)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남학생은 부모님이 결정하는(44.9%) 비율이 높았다.

용돈 획득 주기는 월 1회가 32.3%로 가장 많았고, 수시로(26.7%), 매주(21.8%) 순으로 나타나 약 1/3정도가 한 달 단위로 정기적인 용돈을 획득하고 있다. 맹영임(2003)의 연구에서는 수시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월 1회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보였다. 한 달 용돈의 지급 통로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92.1%이며, 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3.4%, 현금과 통장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4.5%로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획득 주기는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수시로(30.5%) 받는 경향이 강하나 여학생은 월 1회(39.7%)가 많아 획득의 정기성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상 집단은 월 1회(37.7%)가 많으나 하 집단은 수시로(31.1%)가

〈표 5-1〉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돈 실태

항 목	구 분	성별		학업 성적			가정 소득		
		남	여	하	중	상	~300만원	301~400만	401만원~
용돈 액수	2만원 미만	68(31.8)	51(21.7)	24(20.2)	40(21.4)	55(27.1)	65(31.6)	25(20.5)	29(24.0)
	2~4만원	96(44.9)	114(48.5)	17(28.8)	90(48.1)	103(50.7)	96(46.6)	60(49.2)	54(44.6)
	4만원 이상	50(23.4)	70(29.8)	18(30.5)	57(30.5)	45(22.2)	45(21.8)	37(30.3)	38(31.4)
	X ²	6.336*		14.050**			7.631		
용돈 액수 인식	많음	19(8.4)	16(6.6)	2(3.3)	14(7.3)	19(8.8)	15(7.0)	12(9.3)	8(6.3)
	적당	148(65.5)	160(66.1)	37(60.7)	117(60.9)	154(71.6)	148(69.5)	83(64.3)	77(61.1)
	적음	59(26.1)	66(27.3)	22(36.1)	61(31.8)	42(19.5)	50(23.5)	34(26.4)	41(32.5)
	X ²	.570		12.007*			4.189		
용돈 액수 결정 방법	부모님 상의	90(39.8)	135(55.8)	23(37.7)	85(44.3)	117(54.4)	99(46.5)	69(53.5)	57(45.2)
	부모님 결정	104(46.0)	79(32.6)	27(44.3)	83(43.2)	73(34.0)	88(41.3)	44(34.1)	51(40.5)
	내가 결정	32(14.2)	28(11.6)	11(18.0)	24(12.5)	25(11.6)	26(12.2)	16(12.4)	18(14.3)
	X ²	12.149**		7.998			2.551		
용돈 획득 주기	매일	23(10.2)	13(5.4)	11(18.0)	13(6.8)	12(5.6)	12(5.6)	12(9.3)	12(9.5)
	월 2~4회	69(30.5)	54(22.3)	16(26.2)	62(32.3)	45(20.9)	63(29.6)	28(21.7)	32(25.4)
	월 1회	55(24.3)	96(39.7)	15(24.6)	55(28.6)	81(37.7)	67(31.5)	43(33.3)	41(32.5)
	수시로	79(35.0)	79(32.6)	19(31.1)	62(32.3)	77(35.8)	71(33.3)	46(35.7)	41(32.5)
X ²	15.210**		19.276**			4.400			
용돈 지급 방식	현금	212(93.8)	219(90.5)	57(93.4)	178(92.7)	196(91.2)	196(92.0)	120(93.0)	115(91.3)
	통장	9(4.0)	7(2.9)	2(3.3)	4(2.1)	10(4.7)	7(3.3)	4(3.1)	5(4.0)
	통장+현금	5(2.2)	16(10.6)	2(3.3)	10(5.2)	9(4.2)	10(4.7)	5(3.9)	6(4.8)
	X ²	5.585		2.465			.331		
용돈 사용 정도	부족	42(18.6)	43(17.8)	16(26.2)	42(21.9)	27(12.6)	31(14.6)	28(21.7)	26(20.6)
	거의 다 사용	87(38.5)	99(40.9)	22(36.1)	86(44.8)	78(36.3)	82(38.5)	52(40.3)	52(41.3)
	반 정도 사용	60(26.5)	68(28.1)	17(27.9)	43(22.4)	68(31.6)	62(29.1)	33(25.6)	33(26.2)
	거의사용않음	37(16.4)	32(13.2)	6(9.8)	21(10.9)	42(19.5)	38(17.8)	16(12.4)	15(11.9)
X ²	1.103		18.847**			6.014			
용돈 사용 내용 ¹⁾	학용품	115(50.9)	131(54.1)	33(54.1)	81(42.2)	132(61.4)	120(56.3)	69(53.5)	57(45.2)
	교양, 오락비	180(79.6)	145(59.9)	48(78.7)	141(73.4)	136(63.3)	144(67.6)	88(68.2)	93(73.8)
	외식비,간식비	138(61.1)	169(69.8)	37(60.7)	138(71.9)	132(61.4)	141(66.2)	80(62.0)	86(68.3)
	의류, 신발	65(28.8)	97(40.1)	17(27.9)	84(43.8)	61(28.4)	68(31.9)	47(36.4)	47(37.3)
	선물비	30(13.3)	49(20.2)	14(23.0)	28(14.6)	37(17.2)	42(19.7)	20(15.5)	17(13.5)
	교통비	47(20.8)	49(20.2)	16(26.2)	33(17.2)	47(21.9)	43(20.2)	29(22.5)	24(19.0)
	저축	46(20.4)	36(14.9)	9(15.1)	29(15.1)	44(20.5)	36(16.9)	22(17.1)	24(19.0)
	도서구입 등	57(25.2)	48(19.8)	9(14.8)	42(21.9)	54(25.1)	43(20.2)	32(24.8)	30(23.8)
저축 정도	정기적 저축	26(11.5)	31(12.8)	6(9.8)	17(8.9)	34(15.8)	24(11.3)	13(10.1)	20(15.9)
	가끔 저축	126(55.8)	141(58.3)	28(45.9)	123(64.1)	116(54.0)	124(58.2)	68(52.7)	75(59.5)
	저축 안함	74(32.7)	70(28.3)	27(44.3)	52(27.1)	65(30.2)	65(30.5)	48(37.2)	31(24.6)
	X ²	.846		12.172*			5936		
용돈통장 보유 동기	부모님이 만들	54(51.4)	72(53.7)	18(14.3)	54(53.5)	54(49.5)	53(52)	32(53.3)	41(53.2)
	내가 만들	45(42.9)	55(41.0)	10(34.5)	42(41.6)	48(44.0)	44(43.1)	23(38.3)	33(42.9)
	학교의 권유	6(5.7)	7(5.2)	1(3.4)	5(5.0)	7(6.4)	5(4.9)	5(8.3)	3(4.9)
	X ²	.131		1.652			1.571		
자신 관리 통장수	없다	81(35.8)	67(27.9)	23(37.7)	58(30.5)	67(31.2)	70(33.0)	48(37.2)	30(24.0)
	1개	123(54.4)	144(60.0)	34(55.7)	115(60.5)	119(54.9)	119(56.1)	74(57.4)	74(59.2)
	2개 이상	22(48.5)	29(12.1)	4(7.8)	17(8.9)	30(14.0)	23(10.8)	7(5.4)	21(16.8)
	X ²	3.519		4.928			11.318*		

* p < .05 ** p < .01

1) 다중응답 교차분석

〈표 5-2〉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돈 실태

N(%)

항 목	구 분	어머니 학력			어머니 직업			
		중졸	고졸	대졸	전업주부	판매직	사무직	전문직
용돈 액수	2만원 미만	9(25.0)	66(25.9)	44(27.8)	64(28.8)	25(26.3)	21(23.9)	9(20.5)
	2~4만원	17(47.2)	119(46.7)	74(46.8)	106(47.7)	41(43.2)	40(45.5)	23(52.3)
	4만원 이상	10(27.8)	70(27.5)	40(25.3)	52(23.4)	29(30.5)	27(30.7)	12(27.3)
	X ²	.360			3.860			
용돈 액수 인식	많음	1(2.7)	17(6.4)	17(10.2)	14(6.1)	8(7.8)	7(7.9)	6(13.0)
	적당	27(73.0)	180(68.2)	101(60.5)	157(68.0)	64(62.7)	63(70.8)	24(52.2)
	적음	9(24.3)	67(25.4)	49(29.3)	60(26.0)	30(29.4)	19(21.3)	16(34.8)
	X ²	5.061			6.911			
용돈 액수 결정 방법	부모님 상의	17(45.9)	133(50.4)	75(44.9)	117(50.6)	43(42.2)	44(49.4)	21(45.7)
	부모님 결정	18(48.6)	99(37.5)	66(39.5)	87(37.7)	39(38.2)	37(41.6)	20(43.5)
	내가 결정	2(5.4)	32(12.1)	26(15.6)	27(11.7)	20(19.6)	8(9.0)	5(10.9)
	X ²	4.389			6.710			
용돈 획득 주기	매일	5(13.5)	19(7.2)	12(7.2)	15(6.5)	11(10.8)	4(4.5)	6(13.0)
	월 2~4회	11(29.7)	70(26.5)	42(25.1)	60(26.0)	26(25.5)	23(25.8)	14(30.4)
	월 1회	10(27.0)	82(31.1)	59(35.3)	76(32.9)	30(34.3)	28(31.5)	17(37.0)
	수시로	11(29.7)	93(35.2)	54(32.3)	80(34.6)	35(34.3)	34(38.2)	9(19.6)
X ²	3.390			8.881				
용돈 지급 방식	현금	35(94.6)	242(91.7)	154(92.2)	214(92.6)	96(94.1)	78(87.6)	43(93.5)
	통장	0(0.0)	10(3.8)	6(3.6)	8(3.5)	3(2.9)	3(3.4)	2(4.3)
	통장+현금	2(5.4)	12(4.5)	7(4.2)	9(3.9)	3(2.9)	8(9.0)	1(9.8)
	X ²	1.520			5.731			
용돈 사용 정도	부족	5(13.5)	43(16.3)	37(22.2)	38(16.5)	18(17.6)	15(16.9)	14(30.4)
	거의 다 사용	16(43.2)	110(41.7)	60(35.9)	97(42.0)	35(34.3)	37(41.6)	17(37.0)
	반 정도 사용	13(35.1)	70(26.5)	45(26.9)	61(26.4)	33(32.4)	25(28.1)	9(19.6)
	거의사용않음	3(8.1)	41(15.5)	25(15.0)	35(15.2)	16(15.7)	12(13.5)	6(13.0)
X ²	5.507			7.821				
용돈 사용 내용 ¹⁾	학용품	13(35.1)	142(53.8)	91(54.5)	118(51.1)	55(53.9)	47(52.8)	26(56.5)
	교양, 오락비	29(78.4)	183(69.2)	113(67.7)	155(67.1)	67(65.7)	69(77.5)	34(73.9)
	의식비, 간식비	27(73.0)	166(62.9)	114(68.3)	150(64.9)	66(64.7)	59(66.3)	32(69.6)
	의류, 신발	17(45.9)	98(37.1)	47(28.1)	82(35.5)	36(22.2)	27(16.7)	7(10.5)
	선물비	4(13.5)	47(17.8)	27(16.2)	41(17.7)	19(18.6)	13(14.6)	6(13.0)
	교통비	14(37.8)	48(18.2)	34(20.4)	48(20.8)	19(18.6)	18(20.2)	11(23.9)
	저축	3(8.1)	50(18.9)	29(17.4)	41(17.7)	18(17.6)	18(20.2)	5(10.9)
	도서구입 등	3(8.1)	57(21.6)	45(26.9)	56(24.2)	26(25.5)	16(18.0)	7(15.2)
저축 정도	정기적 저축	1(2.7)	32(12.1)	24(14.4)	30(13.0)	11(10.8)	13(14.6)	3(6.5)
	가끔 저축	21(56.8)	151(57.2)	95(56.9)	128(55.4)	61(59.8)	50(56.2)	28(60.9)
	저축 안함	15(40.5)	81(30.7)	48(28.7)	73(31.6)	30(29.4)	26(29.2)	15(32.6)
	X ²	4.762			2.534			
용돈통장 보유 동기	부모님이 만들	13(56.5)	72(55.4)	41(47.7)	57(46.7)	33(60.0)	25(56.8)	11(61.1)
	내가 만들	8(34.8)	51(39.2)	41(47.7)	59(48.4)	19(34.5)	17(38.6)	5(27.8)
	학교의 권유	2(8.7)	7(5.4)	4(4.7)	6(4.9)	3(5.5)	2(4.5)	2(11.1)
	X ²	2.386			5.854			
자신 관리 통장수	없다	10(27.0)	88(33.5)	50(30.1)	74(32.2)	35(34.3)	25(28.4)	14(30.4)
	1개	25(67.6)	151(57.4)	91(54.8)	131(57.0)	58(56.9)	52(59.1)	26(56.5)
	2개 이상	2(5.4)	24(9.1)	25(15.1)	25(10.9)	9(8.8)	11(12.5)	6(13.0)
	X ²	5.902			1.421			

* p <.05 ** p <.01

1) 다중응답 교차분석

많아 성적이 좋을수록 한 달 주기의 획득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자기통제가 잘 되어 용돈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일정한 액수의 용돈을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획득하면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2) 용돈의 사용

용돈 사용 정도를 보면 거의 다 쓴다는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반 정도 쓰는 경우는 27.4%,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경우는 14.7%로 나타나 약 40%는 받은 용돈을 다 쓰나, 약 15%는 대체로 쓰지 않는 경향이었다. 용돈이 부족하다는 경우는 18.2%로 약 20% 가까이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용돈사용 정도는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하 집단은 상 집단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경향이 강하였다.

용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목을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교양오락비(게임비, 노래방, 영화, 음반)가 69.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식비 및 간식비(65.6%), 학용품구입비(52.6%), 의류나 신발 구입비(34.6%), 도서구입 및 대여료(22.4%), 교통비(20.5%), 저축 (17.5%), 선물비(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중학생들에게 있어 용돈지출의 주요 비목은 교양오락비와 외식, 간식비임을 알 수 있다. 장혜경(2005)도 중학생 용돈의 주 사용처는 식비 및 간식비가 가장 많고 이어 의류구입비, 오락비라고 하여 '식비'에 따라 용돈의 배분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 용돈사용 내용은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하여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외식비·간식비(36.1%)에 많이 쓰는 반면, 남학생은 교양·오락비(38.5%)에 많이 지출하였다. 학업성적별로는 상 집단은 외식비·간식비가 많았으나, 중, 하 집단은 교양·오락비가 많았다.

3) 저축 관련

저축정도를 보면 가끔 저축이 57.1%로 가장 많았고, 전

혀 하지 않는 경우는 30.8%,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12.0%로, 중학생의 70% 정도는 가끔이나 정기적으로 저축하였으나 약1/3은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 저축정도는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기적 저축은 학업성적이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하여 높았고, 가끔 저축은 중 집단이 높았으며, 저축을 안 하는 비율은 하 집단이 유의적으로 높아 성적이 낮을수록 저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통장의 보유를 보면 51.1%가 자신의 용돈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경제신문과 삼성경제연구소(2002)가 실시한 중고생 경제 의식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의 학생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통장을 가지게 된 동기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경우(52.7%),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경우(41.8%), 학교의 권유로 만든 경우(5.4%)로 나타나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통장을 보유하게 되나 부모님과 학교 등 외부의 권유로 만들게 된 경우가 더욱 많았다. 장금옥(2003)의 연구에서도 용돈통장 보유 계기는 부모님이 만들어 준 경우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학생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의 개수를 보면, 57.4%가 1개를 소유하고 있었고, 2개인 경우는 9.4%, 3개 이상인 경우는 1.5%로 나타나 약 70%가 1개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없다는 학생은 31.8%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통장보유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 관리 통장 수는 가정소득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401만원이상 집단이 300만원이하 집단에 비하여 없다는 비율은 낮았고, 2개 이상 관리한다는 비율은 높아 소득이 높은 집단의 자녀가 자신이 임의로 관리하는 통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용돈관리 행동 및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1) 전반적인 경향

전체적인 용돈관리 행동을 보면<표 6> 평균 2.64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 중 실행능력이 2.89점으로 가장 높았

고, 계획능력(2.62점), 평가능력(2.41점)의 순으로 나타나 실행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평가능력은 가장 낮았다.

먼저 계획능력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번 용돈을 받을 때까지 비상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시적인 생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없다’(2.77점), ‘용돈은 항상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사용한다’(2.51점), ‘용돈에 맞게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운다’(2.46점), ‘용돈을 받으면 저축할 계획을 미리 세운다’(2.36점)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받은 용돈을 목표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지출이나 저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은 상당히 낮아 이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실행능력 영역은 용돈관리 행동 점수 중 가장 높아 3점대에 가까웠는데, 구체적으로는 ‘용돈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외상을 하거나 친구에게 빌려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3.56점)가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3.17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2.91점), ‘용돈을 받으면 계획한 대로 저축한다’(2.37점)로 나타나 중학생들은 받은 용돈의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빌리지는 않은 편이나 저축까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은 용돈의 범위 안에서라도 일정 부분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표 6〉 용돈관리 행동

()안은 %임

용돈관리 행동 문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M(SD)
계획 능력	용돈은 항상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사용한다.	97(20.7)	135(28.8)	163(34.8)	50(10.7)	23(4.9)	2.51(1.084)
	예상하지 않았던 용돈이 생겨도 계획해서 쓴다.	110(23.5)	140(29.9)	143(30.6)	55(11.8)	20(4.3)	2.43(1.100)
	용돈에 맞게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운다.	102(21.8)	138(29.5)	157(33.5)	52(11.1)	19(4.1)	2.46(1.074)
	다음번 용돈을 받을 때까지 비상금을 확보하고 있다.	63(13.5)	83(17.7)	118(25.2)	121(25.9)	83(17.7)	3.17(1.288)
	일시적인 생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없다.	69(14.7)	93(19.9)	209(44.7)	71(15.2)	26(5.6)	2.77(1.054)
	용돈을 받으면 저축할 계획을 미리 세운다.	111(23.7)	156(33.3)	140(29.9)	45(9.6)	16(3.4)	2.36(1.051)
합계		552	745	930	394	187	2.62(.81)
실행 능력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한 대로 실행한다	66(14.1)	112(23.9)	176(37.6)	93(19.9)	21(4.5)	2.77(1.063)
	용돈을 받으면 계획한 대로 저축한다	113(24.1)	149(31.8)	147(31.4)	36(7.7)	23(4.9)	2.37(1.081)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	61(13.0)	97(20.7)	177(37.8)	90(19.2)	43(9.2)	2.91(1.133)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6(9.8)	76(16.2)	159(34.0)	128(27.4)	59(12.6)	3.17(1.144)
	용돈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외상을 하거나 친구에게 빌려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40(8.5)	38(8.1)	140(29.9)	121(25.9)	129(27.6)	3.56(1.215)
	용돈 지출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한다.	89(19.0)	133(28.4)	160(34.2)	61(13.0)	25(5.3)	2.57(1.099)
합계		415	605	959	529	300	2.89(.76)
평가 능력	용돈은 사용 후에 반드시 계획한 곳에 그대로 사용했는지 검토하고 반성한다	115(24.6)	143(30.6)	158(33.8)	42(9.0)	10(2.1)	2.34(1.012)
	용돈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항상 검토한다.	90(19.2)	108(23.1)	193(41.2)	58(12.4)	19(4.1)	2.59(1.058)
	용돈 사용결과, 잘 사용했는가, 잘못 사용했는가를 평가한다.	91(19.4)	117(25.0)	173(37.0)	64(13.7)	23(4.9)	2.60(1.096)
	나와 친구들의 용돈 사용 씬씀이를 비교해 본다.	126(26.9)	130(27.8)	154(32.9)	46(9.8)	12(2.6)	2.33(1.055)
	용돈에서 계획한대로 저축을 했는지 평가한다	110(23.5)	147(31.4)	168(35.9)	34(7.3)	9(1.9)	2.33(.976)
	용돈 지출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였는지 평가한다	122(26.1)	147(31.4)	159(34.0)	29(6.2)	11(2.4)	2.27(.994)
합계		654	792	1005	273	74	2.41(.78)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이 요망되었다.

평가능력 영역은 용돈관리 행동 중 가장 낮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용돈 사용결과, 잘 사용했는가, 잘못 사용했는가를 평가한다’(2.60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용돈은 사용 후에 반드시 계획한 곳에 그대로 사용했는지 검토하고 반성한다’(2.34점), ‘용돈에서 계획한대로 저축을 했는지 평가한다’(2.33점), ‘용돈 지출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였는지 평가 한다’(2.27점)는 2.5점대 미만으로 가장 낮아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중학생은 용돈을 실행하는 능력은 보통 정도이나 계획하고 평가하는 능력은 낮아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교육주체별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용돈 사용을 바람직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계획적인 용돈지급과 점검이 필요하겠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이 획득한 금전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적절히 계획하고, 사용 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 영역에서 지도되어야겠다.

2)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돈관리 행동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돈관리 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7>, 학업성적과 가정소득 변인에 따라 일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어머니 학력, 어머니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계획능력은 학업성적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돈사용 계획을 잘하고 있었다.

〈표 7〉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용돈관리 행동

변인	구분	용돈관리 행동		
		계획	실행	평가
성별	남	2.60(.83)	2.89(.78)	2.38(.80)
	여	2.63(.81)	2.89(.74)	2.44(.77)
	t	-.454	.056	-.863
학업 성적	하	2.41(.94) ^a	2.74(.87) ^a	2.40(.85)
	중	2.56(.77) ^{ab}	2.81(.73) ^{ab}	2.37(.77)
	상	2.72(.80) ^b	3.01(.75) ^b	2.44(.77)
	F	4.184 [*]	5.268 ^{**}	.436
가정소득	300만원이하	2.65(.84)	3.00(.75)	2.41(.81)
	301~400만원	2.63(.76)	2.81(.74)	2.45(.80)
	401만원이상	2.53(.82)	2.80(.79)	2.36(.72)
	F	.383	3.716 [*]	.599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46(.75)	2.82(.62)	2.35(.72)
	고졸	2.60(.83)	2.88(.79)	2.39(.81)
	전문대졸이상	2.68(.80)	2.93(.75)	2.45(.76)
	F	1.220	.430	.439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65(.82)	2.92(.76)	2.44(.79)
	판매·서비스직	2.57(.85)	2.91(.76)	2.43(.81)
	사무직	2.61(.81)	2.81(.80)	2.32(.78)
	전문직	2.55(.75)	2.85(.71)	2.36(.73)
	F	.339	.544	.683

* p <.05 ** p <.01, 같은 알파벳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실행능력에서는 학업성적과 가정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가정소득 300만원이하의 집단이 401만원이상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행능력이 우수하였다. 이는 가정소득이 낮으므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거나,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평가능력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아 성별, 학업성적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낮았다.

3. 중학생이 인식한 주체별 소비자교육 및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1) 전반적인 경향

중학생이 인식한 주체별 소비자교육을 보면<표 8>,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순으로 가정에서의 교육 인식이 가장 높았다.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전체적으로 3.24점으로 가장

<표 8> 주체별 소비자교육 인식

()안은 %임

주체별 소비자교육 항목		매우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가정	부모님은 나의 소비생활에 대해 엄격하게 지도 하신다.	31(6.6)	92(19.7)	196(41.9)	116(24.8)	33(7.1)	3.06(.995)
	부모님은 절약하시는 편이다.	6(1.3)	32(6.8)	122(26.1)	202(43.2)	106(22.6)	3.79(.913)
	부모님은 학용품 등 모든 물건을 아껴 쓰도록 지도해 주신다.	11(2.4)	68(14.5)	179(38.2)	141(30.1)	69(14.7)	3.40(.985)
	부모님은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에 대해 말씀을 하신다.	18(3.8)	72(15.4)	160(34.2)	152(32.5)	66(14.1)	3.38(1.028)
	용돈쓰임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63(13.5)	94(20.1)	99(21.2)	133(28.4)	79(16.9)	3.15(1.296)
	가족들은 내가 사야하는 것과 사서는 안 되는 것 등을 말씀해 주신다.	34(7.3)	110(23.5)	155(33.1)	115(24.6)	54(11.5)	3.10(1.107)
	부모님은 나의 용돈지출을 알고 싶어 하신다.	67(14.3)	149(31.8)	117(25.0)	92(19.7)	43(9.2)	2.78(1.187)
합계	230	617	1028	951	450	3.24(.69)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 물자절약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다.	24(5.1)	47(10.0)	159(34.0)	163(34.8)	75(16.0)	3.47(1.039)
	학교에서 소비자역할에 대하여 배운 후 소비자문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34(7.3)	73(15.6)	226(48.3)	94(20.1)	41(8.8)	3.07(.997)
	소비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	28(6.0)	63(13.5)	183(39.1)	135(28.8)	59(12.6)	3.29(1.043)
	선생님은 상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66(14.1)	102(21.8)	171(36.5)	94(20.1)	35(7.5)	2.85(1.124)
	용돈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은 많은 도움이 된다.	68(14.5)	126(26.9)	174(37.2)	74(15.8)	26(5.6)	2.71(1.072)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	39(8.3)	76(16.2)	141(30.1)	126(26.9)	86(18.4)	3.31(1.187)
	학교에서 배운 소비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나의 소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69(14.7)	103(22.0)	194(41.5)	68(14.5)	34(7.3)	2.78(1.095)
합계	328	590	1248	754	356	3.07(.78)	
대중매체	대중매체(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나의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56(12.0)	79(16.9)	181(38.7)	112(23.9)	40(8.5)	3.00(1.110)
	대중매체에서 본 경제정보는 용돈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64(13.7)	101(21.6)	193(41.2)	84(17.9)	26(5.6)	2.80(1.062)
	대중매체에서 본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60(12.8)	104(22.2)	218(46.6)	65(13.9)	21(4.5)	2.75(.997)
	대중매체에서 소비생활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47(10.0)	68(14.5)	179(38.2)	123(26.3)	51(10.9)	3.13(1.109)
	상품을 구매할 때 대중매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다.	35(7.5)	58(12.4)	179(38.2)	127(27.1)	69(14.7)	3.29(1.096)
합계	262	410	950	511	207	3.00(.84)	

높았는데, 문항별로는 ‘부모님은 절약하시는 편이다’(3.79 점)가 가장 높았고, ‘부모님은 학용품 등 모든 물건을 아껴 쓰도록 지도해 주신다’(3.40점), ‘부모님은 근검절약하는 생활태도에 대해 말씀을 하신다’(3.38점)의 순으로 나타나 절약의 역할 모델을 보여주고, 직접 지도하는 것의 인식이 높았다. 한편, ‘나의 용돈지출을 알고 싶어 하신다’(2.78점)는 가장 낮아 자녀의 용돈사용에 대한 부모의 점검은 미흡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전문적인 내용이기보다는 부모의 생활 모습 자체가 학생들의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의 금전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전체적으로 3.07점으로 문항별로는 ‘수업시간을 통해 물자절약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다’(3.47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3.31점), ‘소비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3.29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용돈의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은 많은 도움이 된다’는 2.71점으로 낮았는데 이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용돈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점과 용돈 사용에 있어 교사는 부모만큼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비생활의 기초가 되는 용돈관리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전체적으로 3.00점으로 가정, 학교소비자교육보다 낮은 경향이였다. 문항별로는 ‘상

〈표 9〉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주체별 소비자교육 인식

변인	구분	주체별 소비자교육		
		가정	학교	대중 매체
성별	남	3.30(.68)	3.05(.80)	2.94(.88)
	여	3.18(.69)	3.08(.75)	3.05(.80)
	t	1.985*	-.344	-1.359
학업 성적	하	3.32(.80)	2.93(.75) ^a	2.77(.86) ^a
	중	3.28(.67)	2.99(.75) ^{ab}	2.94(.82) ^{ab}
	상	3.18(.67)	3.17(.79) ^b	3.11(.83) ^b
	F	1.645	3.675*	4.710**
가정소득	300만원이하	3.22(.70)	3.10(.73)	2.97(.80)
	301~400만원	3.22(.70)	3.10(.87)	3.00(.91)
	401만원이상	3.28(.66)	2.98(.74)	3.03(.84)
	F	.424	1.133	.182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23(.76)	2.97(.81)	2.99(.81)
	고졸	3.26(.68)	3.07(.76)	3.00(.85)
	전문대졸이상	3.18(.69)	3.09(.80)	3.00(.84)
	F	1.134	.324	.002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3.19(.71)	3.07(.78)	3.02(.85)
	판매·서비스직	3.31(.64)	3.07(.78)	2.87(.90)
	사무직	3.33(.64)	3.03(.78)	2.99(.76)
	전문직	3.12(.74)	3.12(.72)	3.17(.78)
	F	1.674	.138	1.654

* p <.05 ** p <.01, 같은 알파벳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품을 구매할 때 대중매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었다.’가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중매체에서 소비생활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3.13점, ‘대중매체(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나의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었다’(3.00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에서 본 경제정보는 용돈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2.80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합하면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을 위해 가정의 경우, 부모님들은 자녀의 용돈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는 용돈 및 금전관리에 대한 지도가 요구되며, 대중매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경제 정보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야겠다. 송휘석(2004)도 중학생들의 소비행동과 소비자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중학생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가정의 소비자교육은 체계성과 전문성이 낮고 개별 가정에 따라 편차가 많으므로 학교소비자교육이 주도성을 갖고 가정의 영향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겠다.

2)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소비자교육 인식

중학생의 배경변인 변인에 따라 주체별 소비자교육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표 9>, 성별과 학업성적

에 따라서는 일부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으나, 가정소득, 어머니 직업과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가정소비자 교육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인식수준이 높았으나, 다른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와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은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 성적이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교나 대중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교육을 더 잘 인식하였다. 정영선(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학력에 따라 가정소비자교육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자교육의 인식이 낮은 하 집단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겠다.

4. 주체별 소비자교육이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교육 인식정도와 용돈관리 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수로 살펴보았다<표 10>. 이를 보면 소비자교육 인식도 간에는 $r=.265$ 에서 $r=.507$ 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용돈관리 행동의 하위 요인 간에는 $r=.591$ 에서 $r=.720$ 의 상관성이 나타나 각 변인간의 상관성은 비교적 높은 경향이였다. 또한 소비자교육 인식도와 용돈관리 행동 간의

<표 10> 소비자교육인식도와 용돈관리 행동 간의 상관관계

	소비자교육				용돈 관리 행동			
	가정 r(p)	학교 r(p)	대중매체 r(p)	전체 r(p)	계획능력 r(p)	실행능력 r(p)	평가능력 r(p)	전체 r(p)
가정	-							
학교	.277***	-						
대중매체	.265***	.507***	-					
소비자교육전체	.646***	.798***	.811***	-				
계획능력	.133**	.256***	.347***	.333***	-			
실행능력	.155**	.354***	.358***	.391***	.720***	-		
평가능력	.250***	.309***	.371***	.415***	.591***	.631***	-	
용돈관리전체	.205***	.349***	.410***	.433***	.885***	.893***	.846***	-

Pearson's Linear Correlation ** p<.01 *** p<.001

〈표 11〉 소비자교육 인식정도가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능력		실행능력		평가능력		전체	
	b	β	b	β	b	β	b	β
(상수)	1.341		1.461		.726		1.176	
가정	.034	.029	.034	.030	.162	.142**	.076	.077
학교	.107	.102*	.222	.226***	.137	.136**	.155	.175***
대중매체	.279	.288***	.214	.235***	.247	.264***	.246	.301***
R	.360		.411		.419		.447	
R2(Adj. R2)	.130 (.124)		.169 (.164)		.176 (.170)		.200 (.195)	
F	23.058***		31.439***		32.974***		38.715***	

* p<.05 ** p<.01 *** p<.001

상관성은 $r=.433$ 으로 다소 높은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각 하위 변인 간에는 최대 $r=.371$ 의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로 보아 중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정,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과 이들의 합리적인 용돈관리 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체별 소비자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중학생들의 금전관리행동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바탕으로 중학생의 주체별 소비자교육 인식도가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허용오차값(Tolerance)과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한 결과, 허용오차값의 최저값은 .73이며 분산팽창요인의 최대값은 1.39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인으로는 소비자교육인식도의 하위요인인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수준을, 종속변인으로는 용돈관리 행동에 대한 각 변인들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보았다.

전체적인 용돈관리 행동은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beta=.175$, $p<.001$)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beta=.301$, $p<.001$)이 향상될수록 용돈관리 행동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형의 설명력은 20.0%였다.

용돈관리 행동을 계획, 실행, 평가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학교소비

자교육과 대중매체소비자교육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명력은 13%이었다. 즉, 학교($\beta=.102$, $p<.05$)와 대중매체($\beta=.288$, $p<.001$)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잘 이루어질수록 계획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행능력에 유의한 변인 또한 학교와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으로 설명력은 16.9%로 학교($\beta=.226$, $p<.001$)와 대중매체($\beta=.235$, $p<.001$)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실행능력이 향상되었다. 평가능력은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beta=.142$, $p<.01$) 및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beta=.136$, $p<.01$)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beta=.264$, $p<.001$) 정도가 향상될수록 평가능력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형의 설명력은 17.6%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소비자교육 정도가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는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용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가정,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용돈의 사용 후 평가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계획능력과 실행능력에서는 가정소비자교육의 영향력이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평가능력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저축이나 지출 평가에 대해 부모가 지도하거나 역할모델 등이 됨으로써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조은주(2006)도 어머니의 경제교육이 행동이 중학생의 금전관리행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다소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중학생의 용돈관리 능력 향상에는 교육주체인 가정, 학교, 대중매체를 통

한 소비자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교육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강화될 때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5. 중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별 소비자교육 내용

교육주체에 따라 효과적인 소비자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중학생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을 주제별로 알아보았다. 희망하는 교육내용에는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 근검·절약, 저축의 종류와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권리와 의무, 소비자피해보상·절차·방법, 소비자관련 법규, 인터넷 이용구매 방법, 펀드 및 주식투자 방법이 포함되었다. 주제별 교육내용을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은 근검·절약(87.4%)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희망하며 다음으로 저축의 종류 및 방법(61.3%), 합리적인 소비생활(58.3%),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54.7%)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중학생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리·지도가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권리와 의무(65.4%),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및 방법(47.6%), 합리적인 소비생활(41.7%), 소비자 관련 법규(41.2%)의 순으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위에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및 방법, 소비자 관련 법규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은 펀드 및 주식 투자방법(74.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인터넷 이용구매 방법(60.5%), 소비자 피해 보상절차와 방법(48.1%), 소비자 관련 법규(43.6%)의 순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근래 TV의 경제 관련 교양오락 프로그램의 증가로 이에 대한 중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활용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할 때 이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펀드 및 주식투자방법 등의 내용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시킬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학생이 희망하는 교육주체별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에서는 전문성은 낮으나 부모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한 실천적인 내용을 배우기를 원하였고, 학교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소비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며, 대중매체에서는 최근의 변화된 소비환경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들 교육주체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므로(이승신 외 2인, 2004) 학교가 중심이 되어 각 주제별로 학습하기를 선호하는 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실태 및 행동을 살펴본

<표 12> 중학생이 희망하는 교육주체별 소비자교육 내용

구분	N(%, < >안은 순위임)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	근검 절약	저축의 종류 및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권리와 의무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방법	소비자 관련 법규	인터넷 이용구매 방법	펀드 및 주식투자 방법
가정	256(54.7) <4>	409(87.4) <1>	287(61.3) <2>	273(58.3) <3>	29(6.2) <8>	35(7.5) <6>	17(3.6) <9>	67(14.3) <5>	31(6.6) <7>
학교	113(24.1) <6>	67(14.3) <9>	142(30.3) <5>	195(41.7) <3>	306(65.4) <1>	223(47.6) <2>	193(41.2) <4>	95(20.3) <7>	70(15.0) <8>
대중 매체	78(16.7) <6>	23(4.9) <9>	58(12.4) <8>	61(12.0) <7>	123(26.3) <5>	225(48.1) <3>	204(43.6) <4>	283(60.5) <2>	349(74.6) <1>

고, 가정,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문지 조사로 2007년 4월에 경남의 6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486명을 조사한 자료를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다중응답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은 한 달 평균 1~4만원의 용돈을 월 1회나 수시로 획득하여, 주로 교양오락비, 외식 및 간식비, 학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용돈 액수는 부모와 자녀가 의논하거나 부모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액수는 비교적 적당하다고 보았다. 용돈은 현재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받아 통장으로 지급받는 비율은 낮았다. 중학생의 반 이상이 가끔 저축하는데 약 10%는 정기적으로 저축하였으나, 30%는 전혀 저축하지 않아 저축률이 낮았다. 반 정도 소유한 용돈통장은 부모님이나 중학생 자신이 개설하였고, 학교에서의 권유는 낮아 학교교육에서 이의 강조가 요구되었다. 용돈은 조사대상의 2/3는 거의 다 쓰거나 반 정도 쓰며 1/5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저축에의 배분 비율이 낮으므로 균형 있는 금전사용을 위하여 저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한다. 용돈 실태는 중학생의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용돈교육 시는 이러한 변인을 감안한 교육이 요망된다.

둘째, 중학생의 전체적인 용돈관리 능력은 비교적 낮은 경향이었는데, 이 중 실행능력은 상대적으로 높고 계획능력과 평가능력은 매우 낮았으며 배경변인별로 용돈사용의 계획능력은 학업성적에 따라, 실행능력은 학업성적과 가정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평가능력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이 대부분이 평가능력이 낮았다. 이와 같이 용돈관리 능력이 낮은 이유는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에 용돈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이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소비자영역의 교육 내용에 이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교육 시 중학생이 획득자로서 용돈을 받아 계획하고, 이를 사용하며, 사용 이후에 적절히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실천적인 용돈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학업성적 등의 차이나는 변인을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인식은 가정소비자교육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순이었다. 가정소비자교육은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학교와 대중매체의 소비자 교육은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 시는 교육대상의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도록 한다. 합리적인 소비자교육을 위해 가정에서는 자녀의 용돈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교에서는 용돈 및 금전관리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고, 대중매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경제정보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제공하여 교육주체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겠다. 중학생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가정소비자교육은 체계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별 가정의 편차가 크므로 학교소비자교육이 주도권을 갖고 가정의 교육 영향력을 학교교육의 장에 끌어들이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겠다.

넷째,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용돈관리 행동이 향상되었고, 용돈관리 행동의 하위 요인별로는 계획능력과 실행능력은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평가능력은 가정에서의 소비자교육 및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향상되어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에는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이 다소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학교소비자교육에서는 가정과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교육효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겠다. 특히 가정소비자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제공되어야겠다. 전달체계는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중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체별 소비자교육 내용은 가정에서는 근검·절약, 저축의 종류 및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 등의 실천이 가능하면서

비전문적인 내용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비자권리와 의무, 소비자피해보상·절차·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관련법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었다. 대중매체에서는 펀드 및 주식투자방법, 인터넷 이용 구매방법,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보상·절차·방법으로 나타나 각각의 주체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희망을 감안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의 내용을 포함시킬지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각각의 교육주체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학교 교육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되, 주체별 선호하는 교육내용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중학생의 소비자교육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가 연계될 때 더욱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실천적인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과일심(2004). **청소년의 용돈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벤처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권의주(2002). **아동들의 소비행동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옥(2005). **청소년 소비실태와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선·김시월·김정훈·허경옥·정순희·배미경(2002). **소비자교육의 이해**. 시스마프레스.
 류두남(2002). **중학생의 용돈관리에 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1992). **청소년의 금전관리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화선. 김정숙(2000).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용돈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1), 89-108.
 송휘석(2004). **중학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자교육 실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경순(1993). **청소년의 금전관리의식과 소비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영심(1998). **중학교소비자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기초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명숙(1986). **여학생의 금전관리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이승신·류미현·황은애(2004). **소비자교육과 정보**. 신정.
 장금옥(2003). **용돈통장 보유가 중·고등학생의 용돈관리와 지출 형태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귀례(2005). **중·고등학생들의 용돈 사용 실태와 바람직한 경제교육의 방향**.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순호(2001). **고등학교 경제교육에 있어서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선(2002). **소비자 교육과 합리적 소비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희자(1987). **용돈에 대한 부모의 관리가 자녀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주(2006). **중학생의 금전관리 행동 및 관련 변인-어머니의 경제교육 행동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경제신문, 삼성경제연구소(2002).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한은하(1991). **청소년의 용돈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현정(2003). **중학생의 과소비성향과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겨레신문. 2007. 4. 9.
 Ross E. Lowe, Charles A. Malouf, Annette R.Jacobson (2008). *Consumer Education & Economics(6th edition)*. Glencoe.
 Varcoe, K. P., Perterson, S., Carrett, C., Martin, A., Rene, P., & Costello, C.(2001). What Teens Want to Know about Financial Management.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93(2), 30-3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남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생의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인식은 가정소비자교육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순이었다. 둘째,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실행능력에 비하여 계획능력과 평가능력은 매우 낮으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인 용돈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겠다. 셋째,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용돈관리 행동이 향상되었다. 용돈관리 계획능력과 실행능력은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고, 평가능력은 가정소비자교육 및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다.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이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주체의 연계성을 통하여 중학생의 용돈 및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학생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은 가정에서는 근검·절약, 저축의 종류 및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 등의 실천이 가능하면서 비전문적인 내용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비자권리와 의무, 소비자피해보상·절차·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관련법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었다. 대중매체에서는 펀드 및 주식투자방법, 인터넷 이용 구매방법,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보상·절차·방법으로 교육주체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되, 주체별 선호하는 교육내용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10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10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20일